

녹색제품, 자유무역 추진 “절실”

SERI, G20에서 GTA 합의 도출해야 ... 온실가스 배출 감축효과

녹색제품의 자유무역을 추진함으로써 탄소배출 감축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김화년 수석연구원은 <녹색제품협약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서 “탄소배출 감축이 실현되면 녹색제품 교역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적으로 녹색제품에 대한 관세를 자발적으로 내리는 녹색제품협약(Green Technology Agreement)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GTA는 녹색제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거나 세율을 낮춰 자유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이다.

김화년 연구원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녹색 보호주의 등 탄소 배출감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신흥국은 녹색제품 수요를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며 “탄소배출 감축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어 녹색제품 교역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색기술이 앞서고 관련상품을 많이 보유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먼저 GTA를 시작하고 점차 참여 대상국을 늘려야 한다”며 “GTA 추진기구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주관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적합하며, 관세 철폐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다리 역할을 하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11월 주요 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GTA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7/09>